

2017.09.18

Analyst 허혜민

2122-9183 / hyemin@hi-ib.com

In-depth Report

제약/바이오

유비쿼터스 의료시대

■ 의료기기 최대 시장 미국, 원격의료 도입 확대의 움직임

최근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인류역사상 현재까지 이어져온 대면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U-헬스케어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그 진화의 첫 걸음인 원격의료 시장이 개화되는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는 보건의료 접근이 용이해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지 않으나, 보건의료 분포도가 낮고 의료 비용이 높으며 환자 수요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특히 의료기기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니즈(needs)가 높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약 20조원으로 연평균 14%씩 고성장이 예상되며, 2022년에는 약 4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 및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빠르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보험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원격의료에 우호적인 예산 확대를 하고 있고, 원격의료 서비스 급여 법안 통과 주(state)가 매년 확대되어 미국 51개 주 중에 현재 31개가 허용되었다. 또한, 2014년 오바마케어가 실시된 이후 종업원 50인 이상의 회사는 무조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주들의 원격의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주요 업체로는 2015년 7월 나스닥에 상장한 텔라닥이 있으며, 미국 최초이자 최대 원격의료 업체다. 텔라닥의 매출은 과거 3개년간 연평균 84%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지난해 방문자 수와 가입자수는 각각 7배, 3배 증가하였다.

국내 관련 원격의료 업체로는 인성정보가 있다. 인성정보는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인 미국에 원격의료 제품 하이케어허브를 공급한다. 미국 보훈부(VA)는 원격의료 프로젝트(Home Telehealth)에 향후 5년간 최대 10억 달러(약 1.2조원) 예산을 배정 받았고, 인성정보의 자체 제품 브랜드가 VA항으로 공급된다. 10년 이상 투자만 해온 동사의 U-Health 사업부가 고마진의 하이케어허브 납품을 시작으로 올해 흑자로 돌아서며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미국의 원격의료 시장 개화에 따라 연내 추가 공급 계약도 기대된다.

투자의견

Overweight

Table of Contents

[산업분석]

- 4 I. 높아지는 원격 의료의 필요성
 - 원격 의료란 ?
 - 원격 의료 도입의 필요성

- 7 II. 원격의료 시장
 - 연평균 14% 성장. 피부·신경·만성질환 성장 전망
 - 정부 지원과 원격의료 채택 증가 추세

- 15 III. 주요 업체
 - Teladoc 미국 최대 원격의료 업체

[기업분석]

- 17 인성정보(033230) _원격의료 순풍 타고, 턴어라운드 시작

[산업분석]

I. 높아지는 원격 의료의 필요성

II. 원격의료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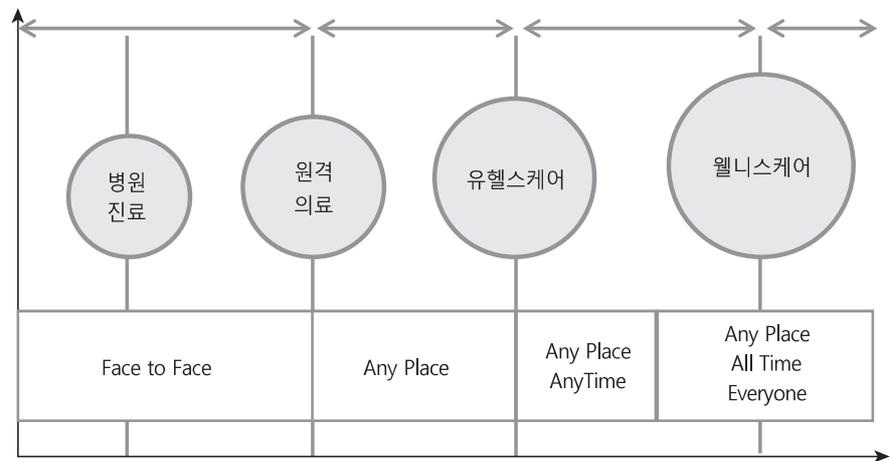
III. 주요 업체

I. 높아지는 원격 의료의 필요성

원격 의료란 ?

IT 산업의 발달로 음식, 의류, 금융 등 인터넷으로 조달이 가능해졌으나, 의료분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직접 찾아가 대면 진료를 하는 전통 진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IoT(사물기반 인터넷)의 발달로 대면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U-헬스케어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U-헬스케어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 Care)의 약어로 IT와 전통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건강한 사람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는 웰니스케어(wellness Care)의 시대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진화의 첫 걸음으로 원격의료를 꼽을 수 있으며, 아직 태동기이나 원격 의료 시장 개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림1> 원격의료 발전 추이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하이투자증권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병원 방문 없이 환자가 의사에게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격의료의 4가지 구성 요소 1) 목적 : 임상적 지원 제공, 2) 지역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환자와 의사 연결, 3)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사용, 4) 목표 : 보건의료를 통한 성과 향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원거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의료정보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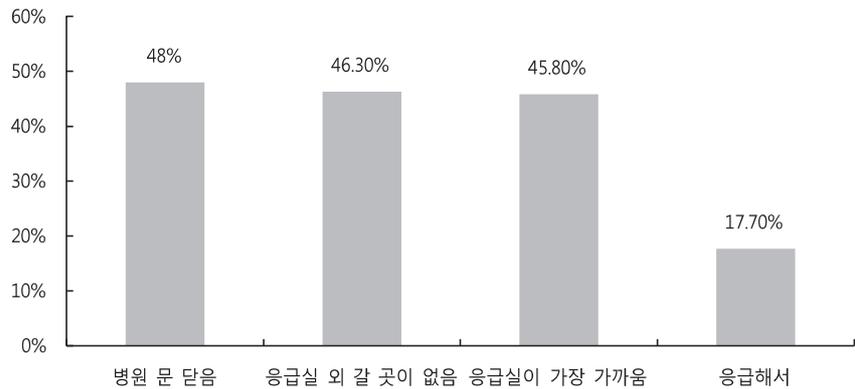
원격의료는 원경모니터링, 원격진료상담, 원격의료교육, 원격돌봄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원격진료상담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당뇨 인구 및 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라 원경모니터링 서비스 분야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원격 의료 도입의 필요성

원격의료는 1)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2) 비용이 저렴하며, 3) 환자 수요가 충족된다는 장점이 있다.

헬스케어 회사 Merritt Hawkins의 설문조사 결과, '14년 미국 병원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은 평균 45.4일로 한달 이상 기다려야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장 의사를 만나야 할 경우에 응급 치료 클리닉(urgent care clinic)이나 응급실에 가야하며, 응급실 방문 평균 비용은 1,223 달러로 100만원이 넘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응급실을 찾은 성인 인구의 79.7%가 병원 접근성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 미국 응급실 방문을 선택한 이유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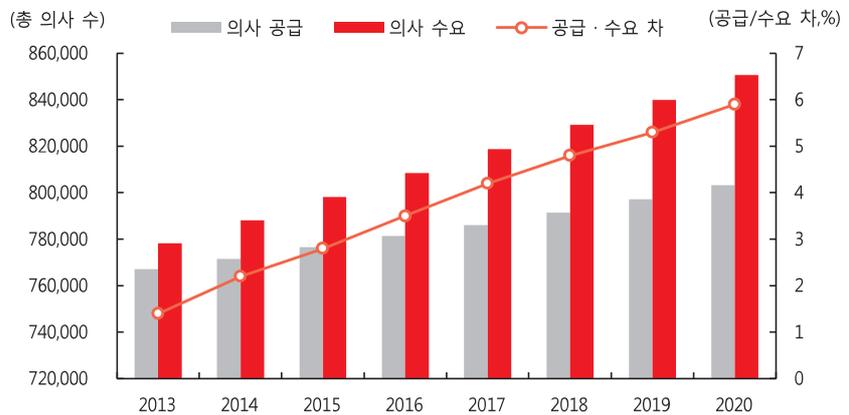
실제로 미국 의사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은 병의원 방문의 70%는 핸드폰으로도 치리가 가능하며, 응급실 방문의 50%는 실제로 응급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원격의료 소프트웨어 회사 ReachHealth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에서 원격의료 도입이 최우선 또는 높은 우선순위라고 응답한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중국도 의료기관의 불균형한 분포, 의료 인력 부족, 낮은 의료 서비스 등의 문제로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병원 분포도가 높아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적으나, 미국·중국과 같이 분포도가 낮은 지역은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입원 일수 감소, 방문 시간 감소 등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감소를 가져온다. 미국은 원격의료 서비스 회당 50 달러 미만으로, 병원 방문 125 달러 또는 응급실 이용 1,233 달러 대비 저렴하여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가 없는 시간에 원격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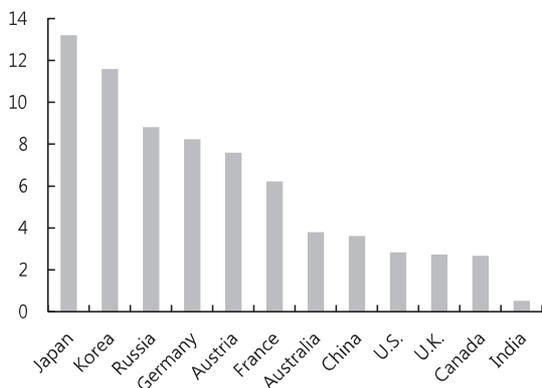
미국은 공급(의사)대비 수요(고령 인구)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0년까지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다. 원격 진료는 진료 예약 대기시간을 줄이고 빠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의료가 떠오르고 있다.

〈그림3〉 미국 내 의사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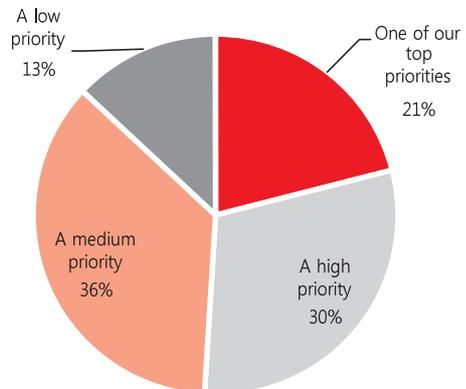
자료: Frost&Sullivan, 하이투자증권

〈그림4〉 1,000명당 침상 수



자료: OECD Data, 하이투자증권

〈그림5〉 원격의료 필요성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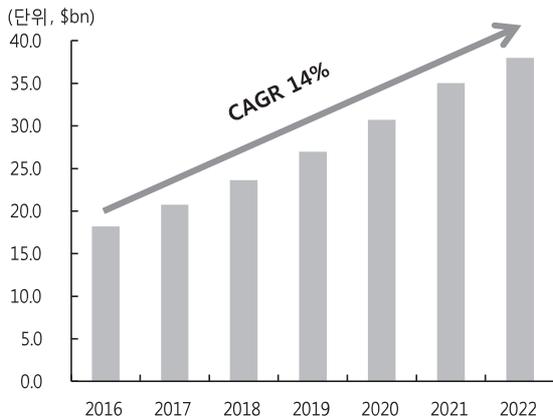
자료: ReachHealth, 하이투자증권

II. 원격의료 시장

연평균 14% 성장. 피부 신경 만성질환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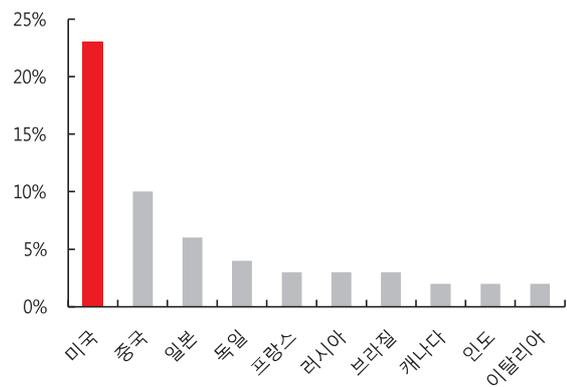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태동기로 2016년 182억 달러(약 20조원)에서 연평균 14%씩 고성장 하여 2022년에 380억 달러(약 43조원)이 전망된다. 현재 진료과목별로 피부과 의 원격의료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피부과는 외관 검사를 통해 처방하기 때문에 비디오 컨퍼런싱이 효과적이다.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환자 증가로 '20년에는 신경정신과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환자는 처방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를 위해 매년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만성질환 환자의 원격진료 활용으로 이러한 환자 편의성을 높여 줄 수 있다.

〈그림6〉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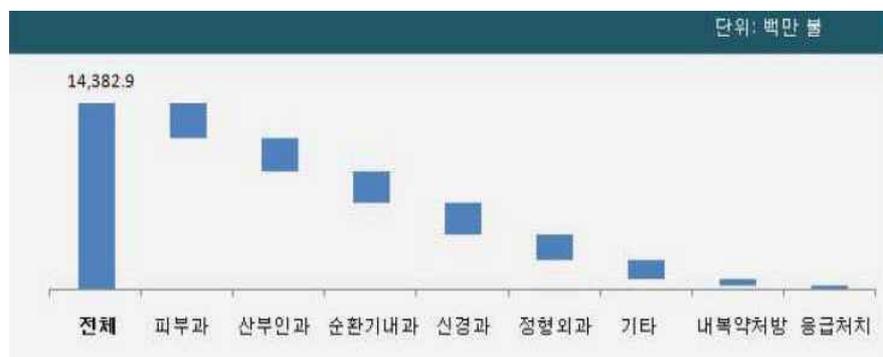
자료: Zion Market Research, 하이투자증권

〈그림7〉 원격의료서비스 국가별 순위



자료: KOTRA, 하이투자증권

〈그림8〉 진료과목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규모



자료: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하이투자증권

정부 지원과 원격의료 채택 증가 추세

의료 서비스는 인류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원격의료 또한 정부의 규제 및 정책 마련과 지원에 따라 시장 개화의 신흥탄으로 보기도 한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 및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 제도 도입은 20년전부터 되었으나, 원격의료 서비스는 최근 들어 확대 추세로 접어들었다. 1997년 균형재정법(연방원격진료법, Balanced Budget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 보험급여 지급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사회보장법이 개정 이후에는 원격의료 방문과 개인 심리치료 등으로도 보험 급여가 확대되었다.

〈표1〉 미국 연방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연도	내용
1993년	원격의료 연구 비영리기관 미국원격의료협회(ATA) 설립
1997년	균형재정법(연방원격지원법, Balanced Budget Act) 제정 메디케어(65세 이상) 첫 원격의료 보험 급여 지급
2000년	사회보장법 개정. 원격의료 방문, 개인심리치료, 약물치료 서비스로 보험 확대
2003년	정신과 진단, 말기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를 확대
2004년	전자건강정보기록(EHR)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정보화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전자건강정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은 원격의료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

자료: KMA의료정책연구소, 하이투자증권

〈표2〉 주(State)별 메디케이드 원격의료 서비스 보험 급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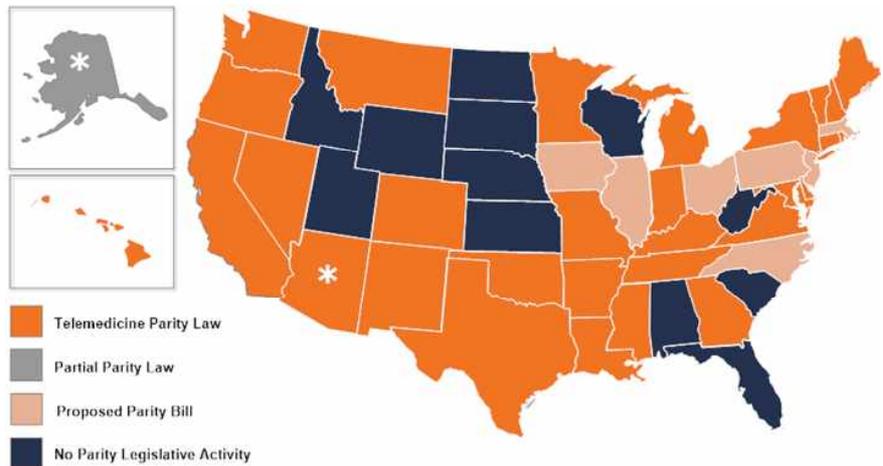
주	내용
Delaware	· 대면진료와 동등한 범위 적용, 학교 기반 프로그램 포함
DC	· '13년 제정 - 대면진료로 제공 가능한 원격의료 서비스 보험 지급 · 제공자 매뉴얼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격 모니터링과 저장 후 전송 유형에 대한 보장하지 않음
Maine	· '09년 제정 - 환자 환경, 서비스 범위, 공급자 자격 제한이 없음 · 쌍방향 오디오-비디오 원격의료 서비스만으로 한정
Maryland	· 농촌지역 환자와 심혈관과 뇌졸중 환자만 기존 허용 · '14년 모든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 적용 범위 확장 · 제공자 매뉴얼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음 · 쌍방향 화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Mississippi	· '13년 제정, '14년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저장-전송 원격의료 서비스 대해서도 보험 적용
New Mexico	· '13년 제정 - 거의 모든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 적용(학교기반, 치과, 홈헬스, 호스피스, 재활) · 행동분석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적용(자폐증 치료) · 환자 환경 제한은 없으나 전화, 원격 모니터링 보험 적용 안됨

주: 원격의료 활용도가 높은 지역 기준

자료: KMA의료정책연구소,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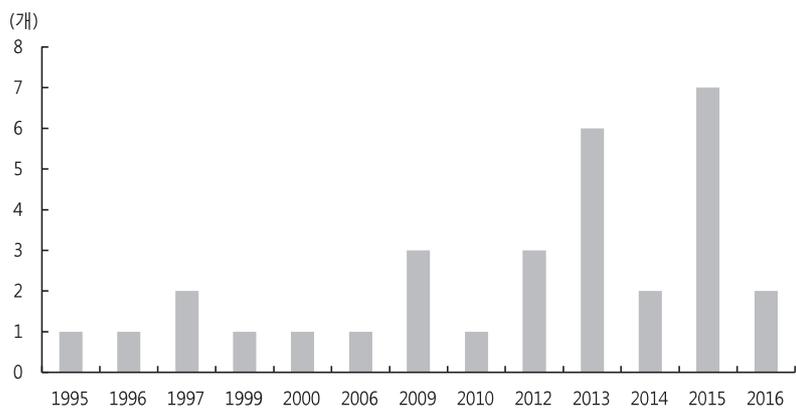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하도록 하는 법안인 parity law는 미국 51개 주 (state)중에 현재 31개가 허용 되어있다. 허용된 주 별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최근 들어 법안 통과된 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7개 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보험 적용 법안이 통과되며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9〉 2016년 민간보험의 원격의료서비스 지급 가능한 주(state)



자료: American Telemedicine, 하이투자증권

〈그림10〉 매년 법안 통과된 주 (state)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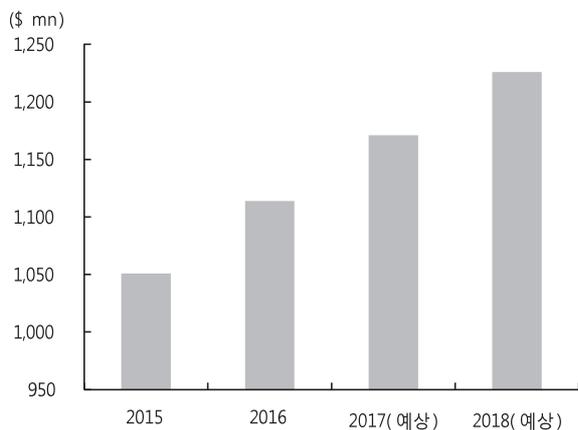
자료: American Telemedicine, 하이투자증권

올해 2월 미국 보훈부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는 퇴역군인들의 재택 건강관리(홈케어와 모니터링)를 위한 원격의료 프로젝트 'Home Telehealth'에 5년간 최대 10억달러(한화 1조1,500억원) 예산을 배정 받았다.

미국 보훈부는 퇴역 군인들의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미국 정부 행정기관으로 미국에 1,700개 이상의 직영 병원과 800만명 이상의 퇴역 군인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프로젝트에 4개 공급업체(Medtronic, Care Innovations, Iron Bow Technologies, 1Vision)가 계약되어 있다. 미국 보훈부는 2015년 68만 퇴역군인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에는 76만 퇴역군인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매년 미 보훈부의 원격의료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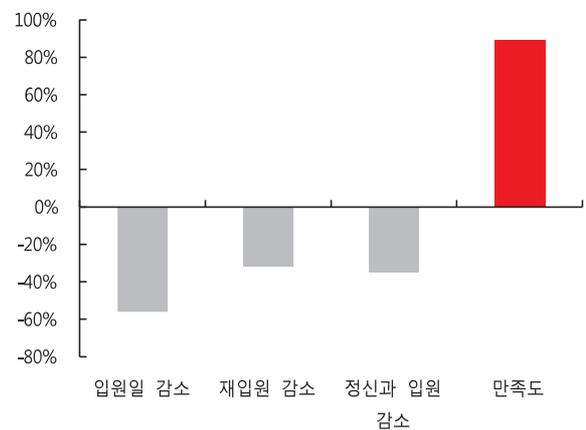
VA 원격의료 프로그램 사용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격의료 사용 후 입원일/재입원일 모두 각 -56%, -32%씩 감소하였던 반면 원격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89%로 높아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8월 3일 VA의 원격의료 접근성(특히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더욱 넓힐 것을 촉구하며,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였다. 첫째로 지방에 거주하는 군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VA에 의료 서비스가 풍부한 주요 도시의 공급업체를 고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예정이다. 둘째로 더욱 편안하고 높은 품질의 원격의료 제공하기 위해 VA 비디오 커넥트를 도입하여 원격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VA 비디오 커넥트는 텔레 모니터링으로 안전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로 VA의 진료 스케줄 및 예약 변경을 더욱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관련하여 8월 12일 트럼프는 퇴역군인들의 채용과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39억달러(약 4조원)의 예산 확대에 서명하였다.

<그림11> 미 보훈부 원격의료 예산 추이와 목표



자료: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하이투자증권

<그림12> VA 원격의료 프로그램의 효율성



자료: mobihealthnews, 하이투자증권

이번 VA 원격의료 프로젝트에 인성정보가 국내 최초로 미국 AMC Health를 통해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예정이다. AMC Health는 1Vision의 컨소시엄으로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추가적인 공급 계약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림13〉 트럼프, 퇴역군인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 언급



자료: the WHITE HOUSE, 하이투자증권

〈표3〉 미 보훈부 원격의료 계약 현황

회사명	계약 금액 (\$USD mm)	비 고
메드트로닉 (Medtronic PLC)	\$258(약 2970억원)	글로벌 의료품,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통합 임상 원격 보건 서비스 업체인 Cardiacom LLC 인수(13.08)
케어 이노베이션 (Care Innovations, LLC)	\$258(약 2970억원)	인텔(Intel)과 GE 의 합작투자 QuietCare, QTUG 모니터링 시스템 대표적
아이언 보우 테크놀로지 (Iron Bow Technologies)	\$258(약 2970억원)	2011부터 미 보훈부 원격의료 지원 (모든 VA 의료 센터에) 원격화상진단 플랫폼 제공
원비전 (1Vision LLC)	\$258(약 2970억원)	HMS 테크놀로지 (HMS TECHNOLOGIES, INC)와 MBL 테크놀로지 (MBL Technologies, Inc) 의 합작 투자 IT 시스템 통합, 사이버보안 사업

자료: 각 사,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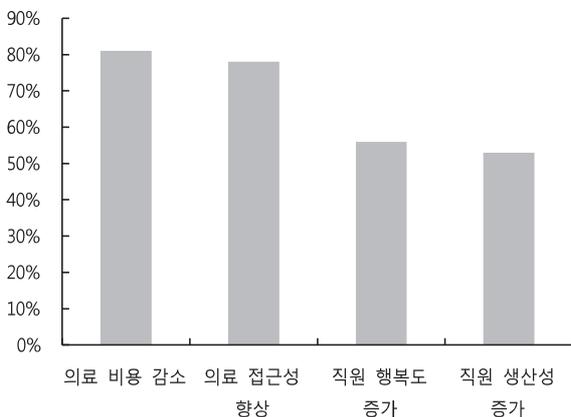
공영보험의 원격의료 지원 확대가 최근 민영보험으로도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Towers Watson이 2015년한 설문조사에서 37%의 고용주들은 향후 원격의료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4년 22%의 고용주들이 원격의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한 지 불과 1년뒤 설문조사에서 15%p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4년 오바마 정부 당시 통과된 의료보험개혁법이 중업원 50인 이상의 회사가 무조건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관련 재정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원격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Towers Watson은 2018년 80%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다른 설문조사 기관인 머시의 고용주 국가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주의 원격의료 도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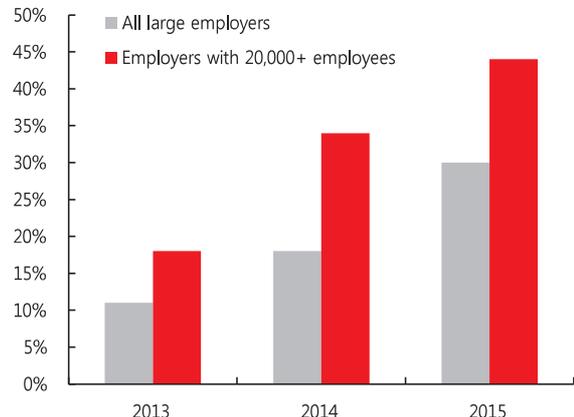
지난 8월말 미국 최대 민영보험사 중 하나인 블루크로스블루실드(BCBS)는 공무원 프로그램(Federal Employee Program, FEP)에 미국 원격의료회사 텔라닥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당일(8/28) 텔라닥의 주가가 9% 상승하였다. 공무원 프로그램(FEP)은 530만명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퇴자 및 가족까지 합하면 800만명 가까이 된다.

<그림14> 고용주들이 원격진료를 선호하는 이유



자료: Towers Watson, 하이투자증권

<그림15> 고용주의 원격의료 도입 추이



자료: Mercer's National Survey of Employer, 하이투자증권

원격의료서비스의 확대 추세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중국 정부도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의료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있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네 의원의 수는 전체 의료기관 수의 26%를 차지하지만 진료 건수는 전체 6.4%만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종합병원 수는 7.2%를 차지하는 반면 진료 건수는 전체의 45%를 차지해 의료불균형이 심하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도 OECD 평균 3.1명 대비 중국은 1.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4〉 OECD 주요국 보건의료 지표

구 분	경상의료비 GDP 대비(%)	1인당 진료횟수(회)	의사수 (천명당)	병상수 (천명당)	기대수명 (년)
중국	5.4	5.4	2.0	4.6	74.8
한국	6.9	14.6	2.2	11.0	81.8
미국	16.4	4.0	2.6	2.9	78.8
일본	10.2	12.9	2.3	13.3	83.4
OECD 평균	8.9	6.8	3.3	4.8	80.5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하이투자증권

2009년 중국은 의료보건시스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도입 등을 의료개혁 주요 방안에 포함되었다. 2014년 의사-의사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15년에는 공공병원이 신속히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표5〉 중국의 의료기관 원격의료 관련 주요 정책

구 분	연 도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원격의료 발전의 토대 구축	1999	원격의료/검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원격의료 관련 최초 문건
	2009	인터넷의료 및 위성 정보서비스 방법 의사의 다수 업무에 관한 통지	원격의료 집행기관 자격, 원격의료 내용 등 규정
원격의료 시스템 발전 촉구	2012	보건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	대형병원과 현급 병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중요사업으로 발표
	2013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격지 지역에 대한 원격진료, 원격 보호 등 원격의료 발전 지원
	2014	의료기구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	지방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원격의료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 원료기관과 환자 간 원격의료 가능하도록 규정
	2015	개혁 및 혁신 확대를 통한 농업현대화 건설촉진에 관한 의견	지정 의료기관과 농촌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2015	도시공공병원 종합개혁시행에 관한 지도의견	공공병원의 조속한 원격의료 구축 의료개혁 시범도시 선정, 의약분업 실시
의료시스템 개혁	2009	의약보건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	원격의료 시스템 추진, 단계별 의료시스템 구축 등 의료 개혁
	2013	건강 중국 2020 전략 연구보고	의료보건분야 지출 GDP 6.5%~7%로 확대 농촌, 서부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중등)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
	2015	전국의료보건서비스시스템 계획 강요	의료정보화 추진 및 스마트 병원 추진

자료: KERI 한국경제연구원, 하이투자증권

이 밖에도 러시아는 지난 7월 원격의료서비스 법안이 의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승인에 서명하여, 2018년 1월부터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KOTRA는 러시아의 원격의료서비스 시장 연간 20%의 성장을 기록하며 2020년 4억 달러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원격의료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각 국가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 등 확대되고 있다.

III. 주요 업체

Teladoc 미국 최대 원격의료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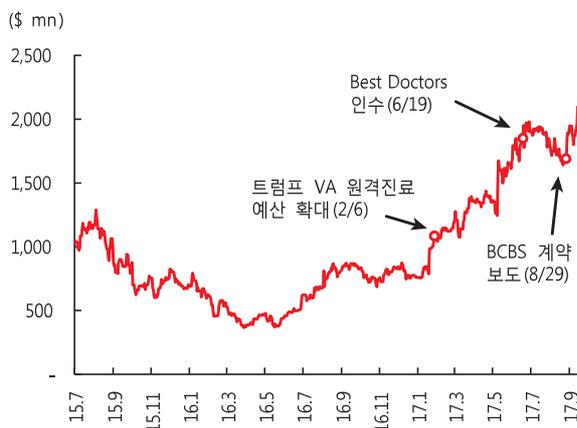
텔라닥은 2002년 스타트업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최초이자 최대 원격진료 회사로 모바일 기기, 인터넷, 비디오 및 핸드폰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특히 컨설팅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텔라닥은 전화 혹은 온라인 화상 통화로 24시간/7일(연중무휴) 의사가 진료를 제공하며, 신청 후 10분 내로 의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7월 나스닥에 공모규모 156백만 달러 (약 1,800억원) 및 15.7월 시가총액 10억불(약 1조원)에 상장되었다. 현재(9/14) 100% 증가한 20억불(약 2.2 조원)으로 성장하였다.

텔라닥은 상장 전부터 현재까지 광고비와 판매비의 증가로 영업손손실과 당기손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난해 매출액은 123백만 달러(약 1,400억원)으로 과거 3개년간 연평균 84%씩 고성장하고 있으며 매출 총 이익률은 70%대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텔라닥은 시장 점유율 75%에 달하며 경쟁 3사 MDLive, American Well, Doctor on Demand의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크다. 2013년 연평균 텔라닥 방문자 수는 12만7천에서 95만2천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멤버십 가입자 수 또한 600만에서 지난해 1,800만으로 3배 증가하였다. 텔라닥은 올해 연평균 방문자수와 멤버십 가입자수는 각각 145만(YoY +52%), 총 멤버십 가입자수는 2,300만(YoY +31%)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매출 가이드선도 전년 대비 50% 성장한 1억8,500만 달러를 제시하였다.

<그림16> 텔레닥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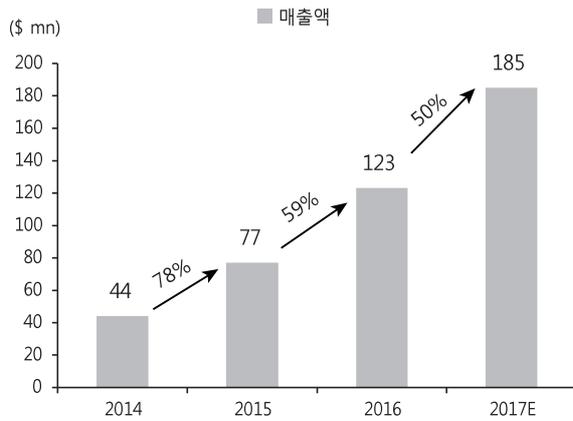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7> 텔레닥의 비디오 컨설팅 의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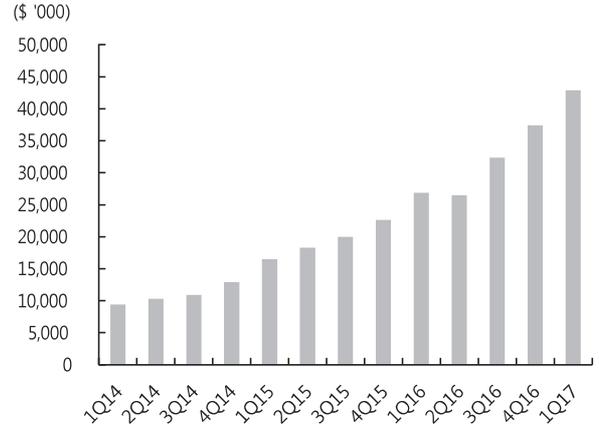
자료: Teladoc, 하이투자증권

<그림18> 텔레닥 연간 매출액 추이 및 가이드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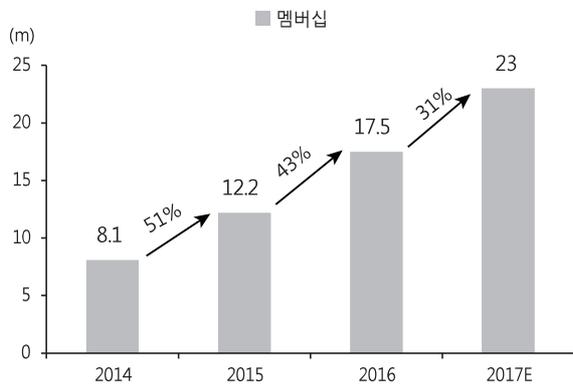
자료: Teladoc, 하이투자증권

<그림19>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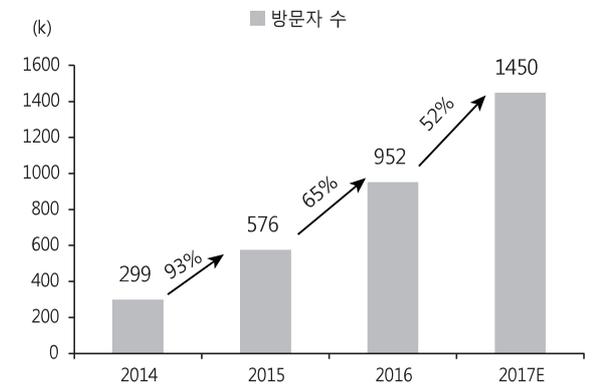
자료: Teladoc, 하이투자증권

<그림20> 텔레닥의 멤버십 가입자 수



자료: Teladoc, 하이투자증권

<그림22> 텔레닥 연평균 방문자 수



자료: Teladoc, 하이투자증권

지난 6월초 텔라닥은 베스트 닥터(Best Doctors)를 4억4000만 달러에(약 5,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베스트 닥터는 5만명의 의학 전문의와 80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9,200만 달러(약 1,000억원)을 기록한 의료 전문 컨설팅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베스트 닥터 인수를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료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분석]

인성정보(033230)

- 원격의료 순풍 타고, 턴어라운드 시작

인성정보(033230)

원격의료 순풍 타고, 턴어라운드 시작

■ 국내 최초 미국 원격의료 시장 진입

올해 2월 미국 보건부는 퇴역군인들의 재택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 프로젝트에 5년간 최대 10억달러(한화 1.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4개 공급자(Medtronic, Care Innovations, Iron Bow Tech, 1Vision)가 선정되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미국 AMC Health를 통해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예정이며, AMC Health는 1Vision에 컨소시엄으로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5년간 하이케어 및 스마트 하이케어 허브를 공급이 본격화된다.

■ 턴어라운드의 열쇠를 가진 원격의료 사업부 성장 본격화

올해 상반기 기준 U-Health 사업의 매출 비중은 0.4%로 대부분이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도매 사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 3년간 매출액은 2,500억원대가 유지되며 실적의 큰 성장은 없었다. 영업이익률 또한 IT 인프라 및 도매 사업부문이 99%대로 높아 0~2%대였다. 동사의 고마진 원격의료 자체 제품이 향후 VA항으로 납품됨에 따라 매출과 이익성장이 기대된다. 초도 물량 8,000대가 9월부터 순차 공급되어 올해 4~50억원에 그치겠으나, '18년 1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5년간 총 5~600억원(과거 매출 대비 약 20%)의 안정적인 매출 발생과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딜 레퍼런스가 불러올 나비효과 + α 기대

VA항 납품은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추가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1) VA에 대한 트럼프의 예산이 확대되었고, 2) VA와의 계약 레퍼런스로 인해 타 회사와의 계약에 더욱 용이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인터뷰에서 원종윤 대표는 미국 민간보험 기업 가이징거와 블루크로스블루실드와 거래를 타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원격의료의 시장 도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내 추가 계약 성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기기 딥스킨이 연내 중국 CFDA 승인을 거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4분기부터 VA항 하이케어 허브 공급 시작, VA 공급 및 민영 보험으로 추가 공급이 기대되고 딥스킨의 중국 출시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고마진 사업부 성장이 본격화 되며 오를 것으로 보여 동사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제약/바이오 허혜민

(2122-9183) hyemin@hi-ib.com

NR (Initiate)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14)	5,00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9십억원
발행주식수	1,862만주
시가총액	93십억원
외국인지분율	1.1%
배당금(2016)	-
EPS(2016)	66원
BPS(2016)	2,280원
ROE(2016)	3.3%
52주 주가	3,780~5,970원
60일평균거래량	185,658주
60일평균거래대금	0.9십억원

Price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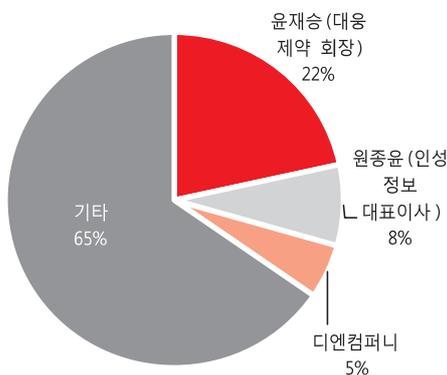


기업 개요

인성정보는 IT 전문회사로 IT 핵심 인프라 제품과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1992년 2월 설립되어 코스닥에 1999년 7월 상장되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웅제약의 윤재승 회장으로 현재 지분 21.6%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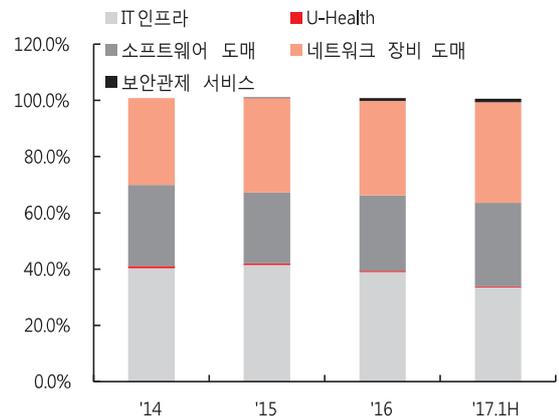
매출의 99%는 IT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장비 도매에서 이뤄지고 있어, 과거 3년간 2,5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2001년부터 U-Healthcare 투자를 시작하였다. 원격의료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T 기술과 의료 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며, 인성정보는 IT와 의료 산업 이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원격의료 제품 ‘하이케어 스마트’와 ‘하이케어 스마트 허브’는 지난 2014년 5월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

〈그림1〉 인성정보 주주 현황



자료: 전자공시, 하이투자증권

〈그림2〉 매출 비중 추이



자료: 전자공시, 하이투자증권

U-Health 사업 본격 성장의 원년

인성정보의 원격의료 제품 하이케어허브가 VA(Veterans Affairs, 미국 보훈부) Home Telehealth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9월부터 초도 공급물량 약 8,000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VA Home Telehealth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최대 10억 달러(약 1.2조원) 예산을 배정하였고, 4개의 공급업체(Medtronic, Care Innovations, Iron Bow Technologies, 1Vision)를 선정하였다. 인성정보는 AMC Health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AMC Health는 1Vision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향후 5년간 1Vision의 약 20%에 해당하는 5~600억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1〉 미 보훈부 원격의료 계약사

회사명	계약 금액 (\$USD mm)	비 고
메드트로닉 (Medtronic PLC)	\$258(약 2970억원)	글로벌 의료품,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통합 임상 원격 보건 서비스 업체인 Cardiocom LLC 인수(13.08)
케어 이노베이션 (Care Innovations, LLC)	\$258(약 2970억원)	인텔(Intel)과 GE 의 합작투자 QuietCare, QTUG 모니터링 시스템 대표적
아이언 보우 테크놀로지 (Iron Bow Technologies)	\$258(약 2970억원)	2011부터 미 보훈부 원격의료 지원 (모든 VA 의료 센터에) 원격화상진단 플랫폼 제공
원비전 (1Vision LLC)	\$258(약 2970억원)	HMS 테크놀로지 (HMS TECHNOLOGIES, INC)와 MBL 테크놀로지 (MBL Technologies, Inc) 의 합작 투자 IT 시스템 통합, 사이버보안 사업

자료: 언론 자료, 하이투자증권

지난 8월 트럼프는 VA의 건강관리 관련 예산을 39억 달러(약 4.4조원) 자금을 제공하기로 서명하였다. 퇴역군인 선택 프로그램(Veterans Choice Program)에 21억 달러(약 2.4조원) 투입하여 28개 신규 의원 개설하는 등 퇴역군인들이 VA외에서도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나머지 18억 달러(약 2조원)은 신규 의원 개설 임대료와 건강관리 제공자 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선택 프로그램은 퇴역군인들이 진료 예약에 30일 이상 걸리거나, VA 편의 시설에 가는데 40 마일 이상 걸릴 경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원격의료 Home Telehealth 프로젝트 추가 예산에 얼마나 할당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트럼프가 의료비 절감에 공감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Home Telehealth의 추가 예산 확대에 인한 동사의 VA향 공급 추가 계약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Tele-Health 프로그램이 퇴역군인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퇴역군인들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다.

레퍼런스의 힘으로 유헬스사업 탄력 받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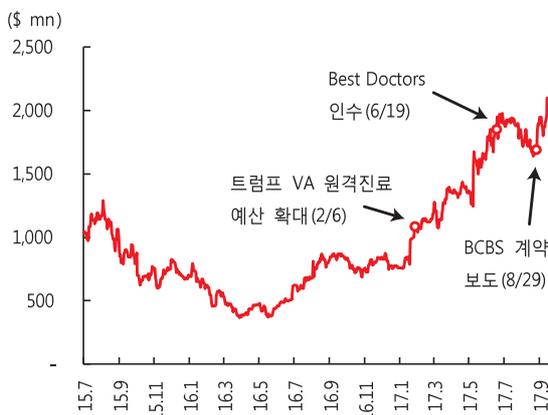
진입이 까다로운 미국 정부 산하 미국 보훈부(VA)로의 공급 계약은 품질 등 테스트 과정이 신뢰 가능한 수준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 민영 보험 업체와의 계약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7월 동사는 브라질 암플리메드(Amplimed)에 65만 달러 규모 원격의료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은바 있고, 최근 원종윤 대표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이징거(Geisinger)와 블루크로스블루실드(BCBS)와 거래를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가이징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지방 지역 건강보험 시스템 중 하나로 보험 가입자는 300만명 이상이 된다. 블루크로스블루실드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최대 민간 의료 보험제도로 36개의 연방 민영보험협회로 이루어져있으며,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A가 제공하는 퇴역군인 800만명 대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민영보험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면, 기존 VA항 계약 대비 훨씬 더 큰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다.

지난 8월말 텔라닥이 블루크로스블루실드와 공무원프로그램에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텔라닥의 당일 주가는 9% 상승 하였는데, 이는 블루크로스블루실드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동사의 제품 하이케어허브와 텔라닥의 차이점은 의료 컨설팅을 주로 하는 텔라닥의 플랫폼 서비스와 다르게 직접적인 치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동사의 제품도 텔라닥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태블릿과 연동되어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 특히, VA 프로젝트에 원격의료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중 유일하게 인터넷과 LTE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전화만 되면 모뎀을 이용하여 동사의 하이케어허브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45%의 퇴역군인들은 주로 VA 헬스케어로부터 떨어진 지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 제품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방에 거주하는 VA 퇴직군인들도 사용 가능하다.

〈그림3〉 텔라닥 시가총액 추이



〈그림4〉 하이케어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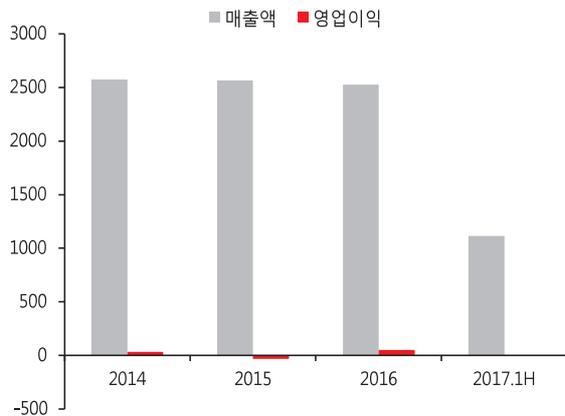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자료: 인성정보, 하이투자증권

동사의 U-Health 사업부는 그 시작부터 최근 VA항 공급계약전까지는 투자단계의 사업부였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동사의 영업이익은 50억원이었는데, U-Health 사업부문의 적자가 26억원이었다. VA항 제품 공급이 올해 9월 시작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U-Health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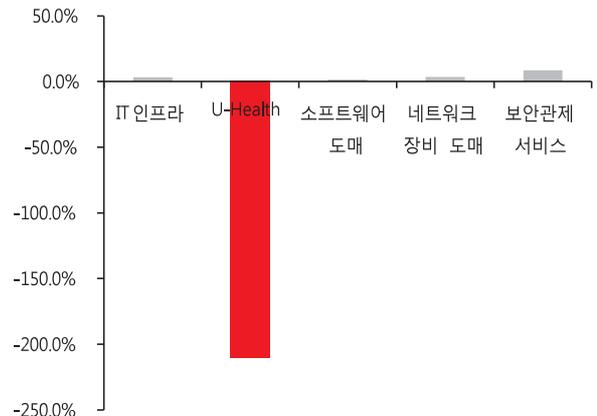
지난해 U-health 사업부는 매출 대비 0.5% 수준이나, 올해 2%, '18년 6%, '19년 7%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A 딜 레퍼런스로 인해 민영보험 등으로 공급계약이 확장 된다면, 실적 개선의 폭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5>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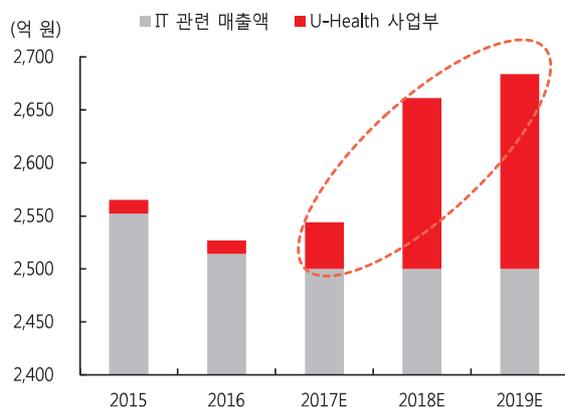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 하이투자증권

<그림6> 2016년 사업부별 영업이익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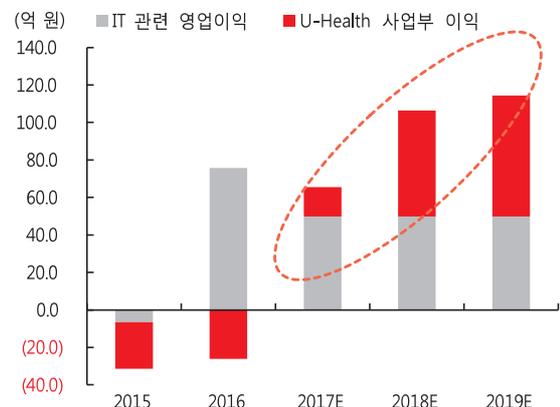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 하이투자증권

<그림7> U-Health 사업부 증가로 매출의 의미있는 성장



자료: 전자공시, 하이투자증권

<그림8> 영업이익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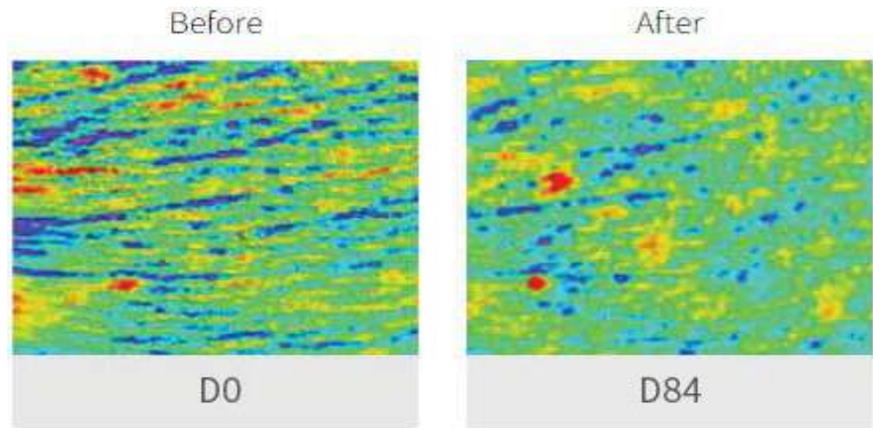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 하이투자증권

딥스킨(DeepSkin, 이온도입기) 중국 출시 기대

딥스킨은 이온토포레시스(Iontophoresis) 기술을 이용하여 마스크 시트에 있는 영양 성분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침투시켜주는 홈 스킨 케어 시스템이다. 미세 전류가 흘러 나와 두 전극 간 전위 차이를 이용해 피부 진피층까지 영양 성분 침투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일반 마스크를 단독 사용하는 것 보다 2.9~8.6배 가량 피부 진피층까지 투입되는 효과가 있어 전문 피부관리실 수준의 케어를 집에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미용 기기이다. 전문가 도움 없이 10~15분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타 마스크 제품의 사용도 가능하나, 인성정보의 마스크 제품은 일반 마스크팩 원단과 다르게 천연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딥스킨과 함께 사용할 경우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딥스킨 인체 임상 결과, 피부 탄력, 보습은 각각 13.7%, 11.2% 올라갔고, 눈가 주름, 색소 침착은 각각 26.1%, 17.3%씩 줄었다. 국내는 지난해 출시했으며, 중국을 올해 4분기 cFDA 통과 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9> 딥스킨 사용 후, 눈가 주름 임상 결과



자료: deepskin, 하이투자증권

<그림10> 미세 전극을 사용한 딥스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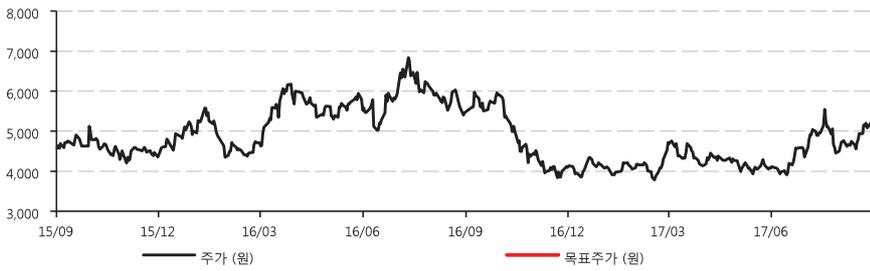
자료: deepskin, 하이투자증권

<그림11> 진피층까지 투입되는 효과



자료: Datastream, Witsview,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인성정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9-18	Not Rated	Not Rated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허혜민)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